

# I. 學術論文

## 1970年度 韓國人 男子簡易勞動力生命表

金 正 根  
 李 先 植  
 金 東 熙  
 서울대학교 保健大學院

### I. 緒 論

資本 및 自然資源과 더불어 人的資源은 經濟發展의 重要要因이며 그중에서도 人的資源의 開發과 活用은 産業化의 前提條件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平均餘命은 最近에와서 顯著하게 늘어나서 1970年度의 生命表<sup>1)</sup>에 의하면 男子 63.2歲 女子 67.1歲로서 1961年の 男子 51.1歲, 女子 53.7歲<sup>2)</sup>에 비해 各各 12.1歲, 13.4歲의 伸長을 보이고 있다. 當然히 高年齡까지 生存하는 確率도 늘어났으며 1970年엔 65歲까지 살아남는 確率은 大都市에선 男子 78.9%, 女子 83.1%까지 되어 勞動力으로서의 餘命 다시 말해서 平均勞動力餘命도 增加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勞動力人口의 크기는 國家의 經濟活動規模를 決定하는 基本的要因의 하나일 뿐 아니라 雇用政策의 目標로서도 意義가 있을 것이다. 또한 平均餘命의 延長이 과연 勞動力餘命의 延長과 直結되는 것인지를 究明하는 것은 高齡者의 勞動問題에 對한 參考資料로서도 有用할 것이다.

本研究에서 作成된 勞動力 生命表는 一般生命表의 應用이며 普通生命表의 年齡階級別 靜止人口와 實際人口의 年齡階級別 勞動力率을 基礎로 하여 勞動力에의 加入 勞動力에서의 離脫 및 平均勞動力 餘命을 算出한 것이다. 勞動力生命表를 一般生命表와의 關連下에서 作成하여 平均勞動力 餘命을 平均餘命과의 對比하에서 測定하는 것은 特히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出生率의 急速한 減少現象과 全年齡層에 걸친 死亡率의 低下는 人口의 老齡化는 勿論, 老年人口의 生存確率을 延長시키고 있는 反面에 우리나라의 工業化와 都市化및 이에 關聯된 社會·經濟의 趨勢는 先進諸國이 經驗<sup>3)</sup>한 것과 같이 老年齡層의 就業可能性을 制限해 온 것 같이 보인다<sup>4)</sup>(表 1 참조) 이와같은 相反된 事實은 勞動力에서 強制的으로 혹은 自發的으로 引退한 老齡人口의 社會保障의 問題와 그들의 社會的適應의 問題가 뒤따를 것이 豫想된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도 勞動力에서 引退하여 死亡할 때 까지의 年數의 確率을 測定하는 것은 老人의 老後生活을 保障하기 爲한 國家와 社會 및 各 家庭이 짊어져야 할 社會福祉負擔의 程度를 아는 것이며 또한 老年人口 政策을 爲한 하나의 基礎資料가 되기도 한다.

둘째로는 既說한 바와 같이 基礎函數인 加入率은 各年齡層에 있어서의 勞動力 加入現況을 나타내는 것이며 離脫率은 雇用體가 새로운 情勢에 對處하여 雇用計劃을 再檢討하는 경우의 基礎材料가

〈表 1〉

年齡階級別 經濟活動 參加率(總數)  
Activity Rate by Age Group (Both Sexes)

단위 : %

	total 總數	14歲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968	56.2	16.7	43.0	61.6	63.7	66.0	70.4	70.7	70.3	64.4	57.6	24.0
1969	56.1	18.8	44.4	61.8	61.6	66.1	67.7	68.6	68.9	62.3	57.2	28.3
1970	55.9	17.4	45.8	59.1	61.6	66.3	68.3	70.5	70.0	63.3	56.6	25.7
1971	55.5	15.6	40.0	60.1	63.0	66.9	70.5	72.7	70.5	67.1	58.8	27.5
1972	56.0	22.4	43.2	59.0	60.3	67.1	70.1	70.4	71.5	67.8	59.2	26.7
1973	56.8	22.7	44.1	59.1	60.6	68.1	71.2	70.9	70.9	69.6	59.8	29.0
1974	57.1	18.5	42.1	60.9	61.4	68.2	72.6	73.1	72.0	70.7	62.9	30.0
1975	56.5	16.1	39.4	60.0	61.9	68.1	72.8	73.5	70.7	69.9	64.1	28.8

Source: 濟活動人口年報,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75.

될 수 있다는 점에 意義가 있을 것이다.

本報告書는 勞動力 推移에 關한 研究의 一部로서 發表하는 것이며 現在作業中인 1965年과 1975年의 勞動力生命表가 完了되는데로 우리나라의 勞動力人口의 推計도 試圖하기로 되어 있다. 經濟 및 社會狀況의 變化와 수반해서 雇用問題의 推移에도 重要한 變化가 豫想되는 차제에 本研究의 結果가 널리 利用될 것을 바란다.

## II. 資料 및 作成方法

### 1) 研究資料

勞動力生命表의 作成에는 一般生命表의 靜止人口와 實際人口의 年齡階級別勞動力率이 必要한데 靜止人口는 保健大學院에서 作成한 1970年度 地域別生命表<sup>1)</sup>의 全國年齡5歲階級別 男子靜止人口를 利用했고 勞動力率에 關해서는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經濟活動人口年報 第9號<sup>2)</sup>에 收錄된 年齡階級別 就業者數에서의 推算值를 使用하였다.

### 2) 作成方法

1970年度 우리나라 男子의 簡易勞動力生命表는 Wolfbein-Wool의 勞動力生命表作成方法<sup>3)</sup>에 依據하였으며 各函數의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 (1) 勞動力率

經濟活動에 參加하는 率이며 年齡階級別 勞動力率( ${}_xW_x$ )의 計算은 다음式과 같다.

$${}_xW_x = \frac{P_{xx}}{P_x} \cdot 100$$

단,  $P_{xx}$ : 年齡階級別就業者數

$P_x$ : " 人口

#### (2) 平均勞動餘命

勞動力人口의 年齡階級別 死亡率과 全體의 年齡階級別 死亡率과를 같다고 假定하여 計算作成했다. 처음에 靜止人口  ${}_xL_x$ 와 年齡階級別勞動力率  ${}_xW_x$ 에서 靜止勞動力人口  ${}_xL_{xx}$ 를 얻고, 그 다음에 一

般生命表와 同一方法으로 平均勞動餘命(average number of years in the labor force remain  $e_{wx}^o$ )을 計算했다.

$$e_{wx}^o = \frac{\sum_x (L_x \cdot W_x)}{I_{wx}} = \frac{\sum_x (L_{wx})}{I_{wx}}$$

여기서 分子가 되는 것은 어느 年齡階級에 있어서 死亡과 引退에 依해서 勞動力에서 離脫할 때까지의 勞動力으로서 生殘하는 總延年數

$$\sum_x L_{wx} = T_{wx}$$

이며 分母  $I_{wx}$ 는 10萬의 假定的 出生코호트에서 始作하여 該當年齡階級の 當初에 있어서의 勞動力으로서의 殘存하고 있는 數인데 表 1 및 表 2에서 보듯 15歲層에서는 勞動力率이 極히 낮고 20歲以後부터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急速히 上昇하여 男子인 경우 30歲를 넘으면서 95%가 넘는 最高水準을 유지하다가 다시 急速히 低下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表 1 參照).

이와 같이 年齡階級別 勞動力率을 나타내는 線은 中央이 높고 兩端이 낮은 曲線이므로 그 最高水

<表 2>

年齡別 男子 勞動力率, 1970年  
Table 2. Labor participation rate of male by age group, 1970

單位: %

年 齡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區 分	國	47.3	77.3	92.1	95.6	95.9	95.2	93.2	87.8	77.1	40.4
	本	36.5	83.5	98.2	98.6	98.5	98.3	98.1	97.3	94.2	60.6
	差	10.8	-6.2	-6.1	-3.0	-2.6	-3.1	-4.9	-9.5	-17.1	-20.2

準을 나타내는 年齡階級보다는 젊은 年齡에 있어서 靜止人口와 年齡階級別 勞動力率과의 積인 靜止勞動力人口의 값을 그대로 平均勞動力餘命의 計算에 使用하면 이들 年齡階級과 最高水準의 年齡階級과의 中間에서 勞動力에 새로이 加入해 들어오는 部分을 除外하게 됨으로 一般生命表의 平均餘命에 對應하는 平均勞動餘命을 넘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30歲未滿의 年齡에 있어서는 30~34歲에 있어서 勞動力率이 1970年에 있어서 거의 最高水準인 95.6%에 達하는데 將來 勞動力率이 이 水準에 達한다는 假定하에서 平均餘命을 計算하였다. 또 實際의 計算에 있어서  $I_{wx}$ 는 近似的으로 다음과 같이 求하였다.

$$I_{wx} = \frac{1}{2} (L_{wx-1} + L_{wx})$$

(3) 勞動力에의 加入率 및 勞動力에서의 離脫率 一般生命表의 死亡率  $d_x$ 는 어떤 年齡階級  $x$ 에 達한 者가  $(x+n)$ 歲가 되기 直前까지에 死亡하는 確率이며  $I_x$ 와  $I_{x+n}$ 의 差가 되는  $d_x$ 를  $I_x$ 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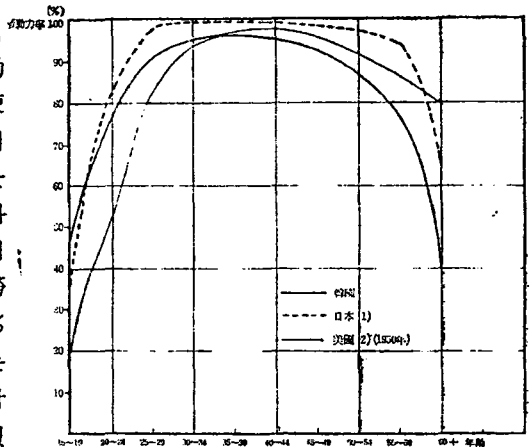


圖 1. 年齡別 男子 勞動力率(1970)

Fig. 1. Labor participation rate of male  
Source 1) 日本男子簡速勞動力生命表, 人口問題研究 127號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1972.  
2) Employmen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1950 United States Census of Population, Special Report,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1953.

는 것인데<sup>7)</sup> 여기에 問題가 되는 死亡確率は 靜止人口에 關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表記된다.

$${}_nq_x = \frac{{}_nL_x - {}_nL_{x+n}}{{}_nL_x}$$

이 靜止人口의 年齡階級別死亡確率  ${}_nq_x$  를 使用했을 경우 한 年齡階級과 다음 年齡階級間에 靜止勞動力人口로 加入한 實數는 그 年齡階級과 다음 年齡階級間에 加入하면서 다음 年齡階級에 到達하기 以前에 死亡한 數도 加入者數에 包含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勞動力率이 最高水準을 보이는 年齡階級까지 計算되어야 한다. 따라서 勞動力에의 加入數( ${}_nA_x$ )는 한 年齡階級에서 다음 年齡階級에 移行했을 때 勞動力에 加入했어야 할 死亡에 의해서 離脫한 것도 包含되어야 하며 그 實數는

$${}_nA_x = {}_nL_{x+n} - {}_nL_{xx} + {}_nL_{xx} \cdot {}_nq_x$$

에 의해서 求할 수 있다.  ${}_nA_x$ 는  $x$ 에서  $x+n$ 까지의 年齡階級の 靜止人口가  $x+n$ 에서  $x+2n$ 까지의 年齡階級에 移行하는 途中에 勞動力으로 加入하는 實際推算數이며 勞動力率이 最高를 보이는 年齡階級보다 위의 年齡階級에 對해선 計算되지 않는다.

勞動力에의 加入率(rate of accession to the labor force,  ${}_nA_x$ )은 한 年齡階級에서 다음 年齡階級에 加入한 實推算數  ${}_nA_x$ 를 첫 年齡階級の 靜止人口로서 나눈 것이 된다.

즉 
$${}_nA_x = \frac{{}_nA_x}{{}_nL_x}$$

勞動力에서의 離脫(rate of labor force separation,  ${}_nq^s_x$ )은 加入率과 마찬가지로 한 年齡階級에서 다음 年齡階級까지 移行했을 때 勞動力에서 離脫하는 總數에서 求한다. 勞動力率이 最高水準을 보이는 年齡階級까지는 離脫은 死亡에 의한 것 뿐이라고 假定하면 離脫率  ${}_nq^s_x$ 는

$${}_nq^s_x = {}_nq_x$$

이때 離脫數  ${}_nS_x$ 는

$${}_nS_x = {}_nL_{xx} \cdot {}_nq_x$$

가 된다.

勞動力率이 最高를 나타내는 年齡階級數以上에 있어서는 離脫者數는 다음 式에서 얻는다.

$${}_nS_x = {}_nL_{xx} - {}_nL_{xx+n}$$

이때 離脫率은

$${}_nq^s_x = \frac{{}_nS_x}{{}_nL_{xx}}$$

가 成立되며 離脫者는 死亡에 의한 것과 引退에 의한 것으로 構成되는데 死亡에 의한 離脫率의 計算은

$${}_nq^d_x = \frac{{}_nq_x(2 - {}_nq^s_x)}{2 - {}_nq_x}$$

이며 引退에 의한 離脫率은 全體의 離脫率에서 死亡에 의한 離脫率의 차이므로

$${}_nq^r_x = {}_nq^s_x - {}_nq^d_x$$

에서 求할 수 있다.

### Ⅲ. 結果의 要約과 考察

經濟活動 參加率은 圖 1에서 보듯이 中進國形<sup>7)</sup>의 形態를 이루고 있으며 全體의 經濟活動參加率은 74.81%로서 日本의 全體經濟活動參加率 84.34%<sup>8)</sup>에 比하여 9.53% 낮은 比率이었다. 이를 年齡

階級別로 보면 14歲부터 점차 增加하여 35~39歲에 이르러 가장 높은 參加率을 나타내었으며 以後 年齡의 增加에 따라 低下하는 傾向은 既說한바와 같다.

日本의 그것과 比較해보면(表 2 參照), 15~19歲 群에서만 韓國男子의 經濟活動參加率의 높았으며 其他年齡群에서는 日本이 높았다. 30歲以下群에서는 軍服務라는 特殊한 事情으로 因하여 日本보다 낮은 參加率을 나타내었다고 볼수 있으며, 60歲以上群에서의 差는 老齡人口構造의 差와 死亡率의 改善에 의한것으로 풀이된다.

Wolfbein and Wool의 作成方法에 依據 製作한 1970年 韓國男子의 簡易生命表는 表 3과 같다. 이 結果를 土台로 靜止勞動力人口, 勞動力에의 加入, 勞動에서의 離脫 및 平均勞動餘命에 關하여 日本의 同年 勞動力 生命表와 比較하면서 약간의 考察을 해보기로 하겠다.

<表 3>

韓國人 男子의 簡易勞動力 生命表 1970年  
Table 3. Abridged labor force life table, Korean male, 1970

年齡階級 Age interval (exact age x to x+5)	勞動力率 Specific activity rate W <sub>x</sub>	生殖散 (100,000) Survivors at age x of 100,000 born alive		勞動力에의 加入率 Rates of accession to labor force <sub>x</sub> A <sub>x</sub>	勞動力에서의 離脫率 Labor force separation rate <sub>x</sub> q <sub>x</sub> <sup>e</sup>	靜止人口 Stationary Total <sub>x</sub> L <sub>x</sub>
		一般勞動力 Labor force				
		一般 Total I <sub>x</sub>	勞動力 Labor force I <sub>wx</sub>			
10~14	17.2	92,274		0.077901		460,190
15~19	47.3	91,787	29,601	0.113718		457,024
20~24	77.3	90,967	56,672	0.195038		452,031
25~29	92.1	89,816	76,074	0.231906		446,165
30~35	95.6	88,637	83,186	0.085331		440,010
35~39	95.9	87,329	83,618		0.00508	432,746
40~44	95.2	85,695	81,882		0.02933	423,267
45~49	93.2	83,490	78,648		0.07999	410,174
50~54	87.8	80,394	72,757		0.18311	391,555
55~59	77.1	75,962	62,631		0.60130	364,969
60	40.4	69,674	40,934		0.67567	1,002,355

年齡階級 Age interval (exact age x to x+5)	靜止人口 Population 勞動力 Labor force <sub>x</sub> L <sub>wx</sub>	累積靜止人口 Cummulative stationary pop.		平均餘命 Expectation of life		平均餘命과勞 動力餘命과의 差 Inactive year e <sup>o</sup> <sub>x</sub> -e <sup>o</sup> <sub>wx</sub>
		一般 Total T <sub>x</sub>	勞動力 Labor force T <sub>wx</sub>	一般 Total e <sup>o</sup> <sub>x</sub>	勞動力 Labor force e <sup>o</sup> <sub>wx</sub>	
10~14	79,153	5,360,480	3,738,996	58.09	40.52	17.57
15~19	216,173	4,900,290	3,659,843	53.39	39.87	13.52
20~24	349,420	4,443,267	3,443,670	48.84	37.88	10.96
25~29	410,918	3,991,237	3,094,250	44.44	34.45	9.99
30~35	420,650	3,545,072	2,683,332	40.00	30.27	9.73
35~39	415,003	3,105,063	2,262,682	35.56	25.91	9.65
40~44	402,950	2,672,317	1,847,679	31.18	21.56	9.62
45~49	382,282	2,249,051	1,444,729	26.94	17.30	9.64
50~54	343,785	1,838,877	1,062,447	22.84	13.21	9.66
55~59	281,391	1,447,323	718,662	19.05	9.46	9.59
60	1,437,271	1,082,354	437,271	15.53	6.28	9.25

(1) 靜止勞動力人口

表 4, 圖 2 는 1970年에 있어서의 男子靜止人口( $L_x$ )와 韓國과 日本의 勞動力人口( $L_{wx}$ )를 年齡階級別로 본 것이다.

〈表 4〉 靜止人口와 靜止勞動力人口의 比較, 1970年  
Table 4. Comparison of 1970 labor force stationary pop. between KOREA & JAPAN

年 齡	靜 止 人 口		靜 止 勞 動 力 人 口		$\frac{L_{wx}(韓國)}{L_{wx}(日本)} \times 100$
	韓 國	日 本	韓 國	日 本	
15~19	457,024	486,988	216,173	177,807	121.58
20~24	452,031	483,879	349,420	404,191	86.45
25~29	446,165	480,515	410,918	471,679	87.12
30~34	440,010	476,790	420,650	470,055	89.49
35~39	432,746	471,915	415,003	464,658	89.31
40~44	423,746	465,055	402,950	457,215	88.13
45~49	410,174	455,359	382,282	446,620	85.60
50~54	391,555	441,336	343,785	429,612	80.02
55~59	364,969	419,925	281,391	395,673	72.12
60+	1,082,355	1,323,713	437,271	801,812	54.54

\* The 24th abridged life table, Institute of Pop. Problems, 1972

\*\* 1970年度 日本人 男子簡易勞動力 生命表, 人口問題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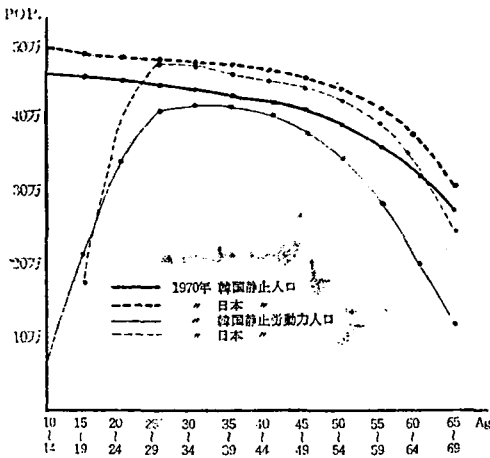


圖 2. 1970年 靜止人口와 靜止勞動力人口  
Fig 2. Comparison of stationary population and stationary labor force population, 1970.

25~29歲 階級에서 55~59歲 階級까지는 靜止勞動力 人口의 數値는 日本에 比하여 근소한 差로 낮으나 15~19歲 階級에서는 높고 20~24歲群과 60歲以上の 群에서는 顯著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年齡層의 勞動力人口가 많고 老年齡層에서는 就業機會가 日本에 比하여 越等히 낮으며 老齡人口의 福祉問題로서 指摘될 수 있을 것 같다. 日本의 年齡階級別靜止勞動力人口를 100으로 하여 우리나라 靜止勞動力人口를 計算해 보면 20~24歲階級에서 56인데 이는 앞서 記述한 바와 같이 軍服務라는 特殊事情으로 인한 것이며 60~64, 65~69, 70~74歲年齡群에서는 各各 57, 56, 36으로 老年齡層의 勞動力人口가 急速히 減少하고 있다. 또 全體적으로 보면 基数10萬의 코호트에서 經驗되는 勞動力生存 總延年數(Total man-years in the labor force,  $T_{wx}$ )는 日本이 4,516,322인데 比하여 韓國은 3,738,996으로서 大端한 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平均勞動力餘命

1970年의 平均勞動力 餘命은 39.87였다. 이는 同年의 日本의 15歲 平均勞動餘命 50.8에 比하여 11.01歲가 낮은 것이다.

勞動力 餘命과 期待餘命의 差異를 보면 韓國男子가 13.51歲인데 比하여 日本은 5.52歲였다. 勿論 死亡率의 差에 影響을 어느정도 받기는 하지만 勞動政策의 課題로서 指摘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經濟活動參加率이 가장 높은 30~50歲 年齡群의 人口에서 一般平均餘命과 勞動力 平均餘命과의 差가 10歲가 된다는것은 注目할만하다(表 3 參照).

### (3) 勞動力參加率과 離脫率

1970年의 勞動力 加入率을 보면 10~14歲階級에서부터 점차 增加하여 25~29歲階級에서 30~34歲階級 사이에 靜止人口 1,000名當 232名에 達하는 最大加入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青年層의 勞動活動에의 參加가 他國에 比해서 相當히 늦어지고 있는 傾向이다.

離脫率을 死亡에 의한 離脫과 引退에 의한 離脫로 區分할 수 있는데 死亡에 의한 경우를 除外한 勞動力에서의 離脫率은 日本이나 美國과 비슷한 類型이기는 하나 50~54歲階級以後의 年齡群에서 우리나라의 離脫率이 急增하는 것은 老齡人口에 對한 保健및 福祉面에서 뒤지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表 5 참조). 離脫率은 保健醫療活動의 擴大와 勞動政策의 改善으로 低下될 수 있다. 先進國에서 經驗한 死亡이나 健康上의 理由로 因한 勞動力에서의 離脫率低下趨勢와 壽命의 延長및 保健施策의 改善과의 높은 相關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趨勢를 보일 것으로 豫測된다.

〈表 5〉

勞動力參加率 및 離脫率의 比較, 1970

Table 5. Comparison of accession & separation rate of labor force

Country Age	韓 Korea	國 Japan	日 日本	差 Difference
15~19	0.07790	0.46256		-0.38466
20~24	0.11372	0.14528		-0.03156
25~29	0.19504	0.00423		0.19081
30~34	0.23191	-0.00127		0.23318
35~39	0.08533	-0.00149		0.08682
40~44	-0.00508	-0.00234		-0.00274
45~49	-0.02933	-0.00739		-0.03672
50~54	-0.07999	-0.03125		-0.04874
55~59	-0.18311	-0.08527		-0.09784
60~64	-0.60130	-0.13666		-0.46464
65~69	-0.67567	-0.35110		-0.32457

\* Source : 日本男子 簡易勞動力 生命表, 人口問題 研究 127號,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1972.

## VI. 結 論

最近 우리나라의 平均餘命은 顯著한 延長을 보이고 있는데 平均餘命의 延長이 勞動力餘命의 延長과 直結되는 것인지를 究明하는 것은 勞動力現況을 把握하고 改善의 方案을 찾는 參考資料로서 뿐만 아니라 保健學의으로도 意義가 있는 것으로 보고 一般生命表의 靜止人口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調査한 全國經濟活動人口資料를 土台로 하여 一連의 男子簡易勞動力生命表를 作成하였으며 勞動力形態의 推移分折과 國際比較를 試圖하였다.

産業別·年度別로 본 勞動力人口의 推移와 將來推計는 다음 報告書에 미루고 여기에서는 1970年度勞動力生命表를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韓國人男子의 全體平均勞動力參加率이 74.8%로서 中進國의 形態를 이루고 있으나 日本에 比하여 9.53%나 낮은 參加率이다. 韓國과 日本의 靜止勞動力人口를 年齡階級別로 比較해 보면 25歲以上 60歲未滿의 人口에 있어서는 日本에 比하여 약간 낮은 數值였으나 15~19歲에서는 높고 20~34歲年齡階級과 60歲以上에서는 顯著히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靑年層의 勞動人口가 많은 反面에 老齡層에서는 就業機會가 낮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老齡人口의 福祉問題로서 指摘될 수 있을 것 같다. 20~24歲 年齡階級에서 낮은 것은 軍服務라는 特殊事情에 因한 것으로 풀이 된다. 全體的으로 보면 基數 10萬의 코호트에서 經驗되는 勞動力生存總延年數는 3,738,996으로서 日本이 4,516,322인 데 比해 大端한 差가 있었다.

15歲平均勞動力餘命은 39.87였다. 이는 同年의 日本의 15歲平均勞動力餘命 50.88에 比하여 11.01이 歲가 낮은 것이다. 勞動力餘命과 期待餘命의 差異를 보면 10~14歲에서 17.57이며 特히 우리나라에서 經濟活動參加率이 가장 높은 30~39歲 年齡階級の 人口에서 期待餘命과 勞動力餘命과의 差가 10歲에 達한다는 것은 死亡率의 差에 어느程度 影響을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先進國과 相當한 差가 있었다.

## Summary

This is a part of study series on changing patterns of labour force and estimate of future labour force populations in Korea. We have estimated future population and constructed series of life tables which will be the basis for calculating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both past and in the future.

The table of working life provides an effective summary of the pattern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country. It gives not only a measure of the average length of working life but is also the measure of the conditions of entrance to and separation from labor force activities. It will be well taken as one of the most useful demographic tools for analyzing the dynamics of the labor force. By wolfbein-Wool's method abridged working life table for Korean males for 1970 was constructed using data of the stable population of 1970 life table and the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published by Economic Planning Board. Some of the finding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Economic activity rate of male population is 74.8%
2. Expectation of labor force life at age group of 15-19 is 40.52
3. Average rate of entries into the labor force is 0.41078
4. Average rate of net separation from the labor forces is 0.2624

As shown of Fig.1, the age specific economic activity rate in Korea shows the same trend of developed countries, though the rate is low. The difference between average remaining active years and expectation of life at age 15 is 13.5.

## 參 考 文 獻

1. 金正根, 李英煥, 全泰允: 生命表에 依한 우리나라 死亡力의 地域別分折
2. 金日炫: 韓國人の 簡易生命表—1961年人口動態申告資料를 基礎로 하여, 人口統計資料 第23號.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75

3. 勞動力人口의 將來推計, 日本 人口問題研究所 研究資料 211號, 1975.
4. 經濟活動人口年報, 第15號,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75.
5. 經濟活動人口年報, 第9號,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71.
6. Wolfbein, S, Wool, H.: Tables of working life: Length of working life for men,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Bulletin 1001, July 1950.
7. 金正根: 人口分折概論, 서울大 保健大學院, 1973.
8. 金子武治: 日本人 男子의 簡易勞動力 生命表,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研究資料 117號, 1972.